

# 21세기 농업 · 농민을 생각하며...

■ 민 승 규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디지털 혁명과 농업혁명

바야흐로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이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농업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이러한 새로운 전환기에 적극 합류해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맞이할 수 있다.

식량과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기능인 농업의 전통적인 역할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국경개방의 가속화나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 경제발전 등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확대 등에 따라 그만큼 농업과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 백성이라 함은 주로 농민을 말

하였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百)은 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많은)가지의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하며, (姓)은 직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농업과 관련시켜 21세기 백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만 각각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의 활용이 더욱 중요시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기후 및 자연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에 관한 화학적인 지식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터넷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1세기에 있어서 농민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등의 새로운 지식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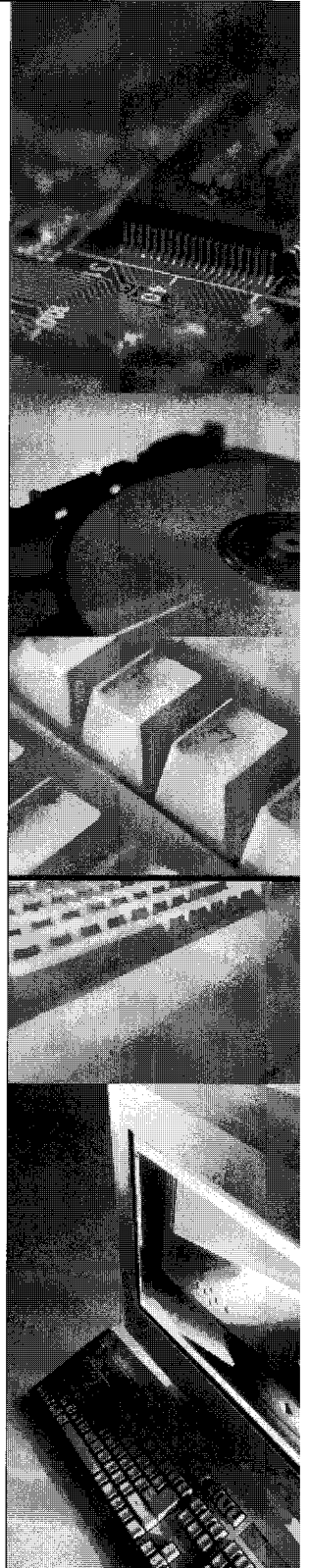
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통농업과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니스(Life Science Business)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백성, 즉 21세기형 농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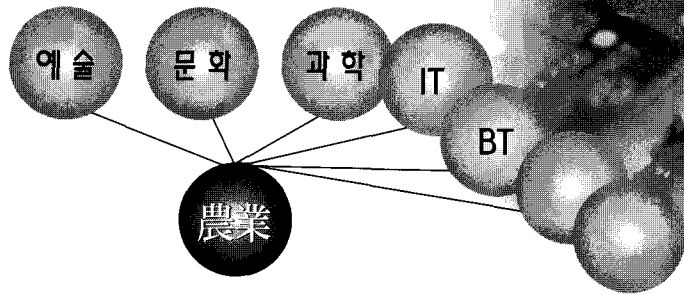
21세기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첨단기술과 정보의 접근 정도에 달려 있다. 농업의 경쟁력도 이같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용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농업의 생산방식과 경영, 농산물의 가공·유통·무역, 나아가 소비자의 소비패턴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교통 및 수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종합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은 농업경영과 유통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경영·정보 등 지식이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종합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전통적 우위요소인 자연조건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게 된다. 이미 시작 단계에 있는 제3차 농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농업과 농업인의 모습은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3대 농업혁명

구분	1차농업혁명	2차농업혁명	3차농업혁명
시기	1800년 전후	1950년 전후	21세기 본격화
내용	삼포식농업에서 윤작법으로 전환	다수확품종의 개발 (멘델법칙 이용)	생명공학, 전자공학, 디지털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
주도국	영국 당시 유럽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 20세기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 농업의 새로운 변혁
특이점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시대조류, 농업에 가능성 쥐  
탈바꿈 위한 스스로의 자각·의지가 중요  
농산물 “먹거리, 고정관념 넘어야





· 점 → 선(네트워크) → 면(시장+시장...) = 한국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 종합적 농업비즈니스 창출

물론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토지의 존성이 높고 기후의 변동에 좌우되기 쉬워서 산업이나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가 좁고 인건비가 비싼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방식만으로는 자생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는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으며, 이제 우리 농업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왔다.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농민이라면 요즘 농업은 흥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촌지역은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within agriculture”가 아닌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 비즈니스(agri-business)가 필요하다. 즉, 농업내부의 개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틀을 뛰어넘어, 비농업 부문과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공급측면만이 아닌

농산물의 유효수요의 확대와 이를 위한 혁신적인 발상, 예를 들면 「脫食品化」 등의 발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농산물=먹거리」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 농업을 식품, 제약, 유통, 관광, 레저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예술, 문화 분야와도 연계를 모색,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농업은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을 찾아내고 도전정신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한 성공사례가 확산될 때 비로써 21세기에 걸맞는 한국농업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사람이다

현 단계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개방화·국제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농업으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농업계 스스로 농업 내부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농업 및 기타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가 미래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견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는 농업의 경쟁력이 합(合)의 개념이었다. 토지, 노동, 자본 등을 더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졌다. 이제 농업의 경쟁력은 위와 같은 고정적 요소에 정보, 아이디어, 서비스 등이 곱해지는 승(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고정적인 요소에 곱해질 때 부가가치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업은 노동·토지·자본 등 인적·물적 요소의 확대에 치중하는 관행농업을 탈피해 그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 기반 농업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21세기형 지식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농업인 스스로의 자각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은 농업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좌우하게 된다. 즉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농가만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술 혁신 노력과 비즈니스 감각이 발달해 있는 지역은 농업이 번영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기피하는 지역일수록 농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남보다 앞서 수용함으로써 그 변화에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아낸 후, 그것을 소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려는 농민의 자세이다. 우선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정부에 의존해왔던 타율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신기술을 수용하여 농업현장에서 실천할 뿐 아니라 항상 세계에서 으뜸 상품을 생산한다는 프로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농약정보**